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만일 누군가 당신을 지켜본다면, 전화와 대화도 도청된다면... 이런 가정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터져 나온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이 그렇다.

고위 공직자가 부하 공무원에게 누군가 몰래 지켜보라고 지시한 끔찍한 일이 증거와 함께 연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도 민주화가 진행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에 의해 사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황당하고 절망적이다.

그런 업무가 부당하다는 것을 뉘그러라고 깨달은 이가 불법사찰 지시 녹음자료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해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과거 얼버무리고 넘어간 이 엄청난 사건을 특별수사부가 다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뒷날 뽀지 말고 몸통을 밝혀내 처벌하는 공명정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법치국가의 위상이 설 것이다.

그런 변화는 훔쳐보기와 도청이 등장하는 영화들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독일영화 '타인의 삶'(2006)은 특히 그렇다. 배경은 통일 5년 전, 비틀러는 동독의 보안국 수장이요 인이다. 그에게 주어질 임무는 잘 나가는 연극 작가 드라이머를 밀착 도

청하는 것이다. 체제 충성적인 드라마를 쓰는 드라이머는 고위층과 친분도 있다.

그런데 예술가 특유의 비판의식도 없이 완벽한 체제 충성적인 점이 오히려 의심을 사게 만든 것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도 있다. 문화부장관이 그와 사는 여배우를 탐내서 작가를 파멸시키려는 권

타인의 삶, 누군가 훔쳐본다는 것

력남의 사적 목적이 가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상한 변화가 발생한다. 작가의 사생활이 비틀러의 눈과 귀를 통해 드러난다. 다가가 보니 그는 체제 비판으로 활동이 정지된 스승의 자살, 검열 당한 친구들 문제로 고뇌하는 예술가이다. 그와 여배우의 사랑과 갈등도 절절하게 공개된다. 경직된 비밀경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들, 예술가들의 고뇌와 우정은 그를 변화시킨다.

익명으로 서독 시사지 '슈피겔'에 동독 현실을 비판한 글을 쓴 작가를 보호하고픈 욕망마저 비틀러에게 생겨난다. 그래서 비

틀러는 작가를 구하기 위해 타이프라이터까지 감추는 위험천만한 일도 감행한다. 작가의 수호천사가 된 것이다.

결국 도청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심증 속에 비틀러는 집배원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난다. 그러다 통일이 된다. 독재 권력의 비리와 반인권적 범죄는 법정에서 처벌받는다. 그러나 도청명령을 거부했기에 비틀러는 집배원으로 살아남는다. 그 사실을 뉘그러 깨달은 작가 역시 비틀러 덕에 살아남아 감동적인 회고록을 쓴다.

이렇듯이 작품은 통일 전후 독일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양심문제와 긍정적인 변화를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부정의한 명령

체제를 탈주하는 비틀러를 맡은 올리바 뒤

해의 연기력은 혀를 차게 만든다. 비밀요원 자체를 보여주는 냉철한 차가운 표정 속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내면의 결은 기막히다. 그런 공감대와 감동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과 더불어 수많은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연기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영화라는 매체는 카메라를 통한 훔쳐보기 메커니즘이 관음증(voyeurism)으로 이어지면서 인간 욕망에 접속한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청하고 훔쳐보는 욕망이 권력

욕과 결합하면 포르노적 권력욕망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키에슬롭스키의 명작 '사람에 관한 짧은 필름'도 그런 점을 보여준다. 앞집 여성을 훔쳐보던 소년은 포르노적 욕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욕망을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그 여성과 인간적 연민을 나누는 변화를 겪는다. 정면으로 뚜렷하게 대하지 못하는 관계는 늘 멸망을 자초한다. 훔쳐보기를 하는 몰카(몰래 카메라)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반인권적 작태다. 그래서 화상실 몰카는 처벌받는다. TV의 몰카형식 프로그램이 허용되는 것은 그 이유와 결과를 내놓고 밝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와 현실은 다르지만, 영화는 현실이란 재료로 만들어진다. 어떤 현실 사건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적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공적 현실의 사생활도 침범하는 변태적 몰카 드라마처럼 보일 정도다.

수사 중인 민간인 사찰은 권력이 가담했기에 화상실 몰카 훔쳐보기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 행위이다. 이제 모두 훔쳐보기가 아닌 상태로 뚜렷하게 그 해결책을 지켜보고 있다.

'타인의 삶'은 2007년 한국에서 개봉했지만 예술영화라는 편견에 묻혀서인지 소수 극장에만 걸려 많은 이들이 볼 기회를 누리지 못한 명작이다. DVD를 통해서라도 꼭 음미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부즈맨 칼럼



강대석

벌써 3월도 마지막 주에 이르렀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봄이 더디오나 싶더니 선진 강가엔 매화가 피고 노란 산수유가 만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봄은 누구에게나 감동과 희망을 일깨운다.

며칠 전 본지 독자 위원회가 있었다. 첫 회의에서인참석한 위원들은 모두 진지한 모습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위원들은 각 계각층의 입장과 신문의 역할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예를 들면 어떤 위원은 학교폭력 대책과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신문으로

관련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언론이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위원은 중앙과 지역 간의 관계에 있어 지역의 문제를 대변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어떤 위원은 균형 있는 보도가 아쉽다고 얘기하면서, 등록금 인하 문제를 보도할 때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내용만 보도하지 말고, 사학재단의 어려움도 함께 취재하여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지역신문으로서 나가야 할 지향점을 분명하게 알려 준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다.

한편, 이야기를 듣다 문득 옛날 소금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비가 오면 소금 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해가 뜨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었다는 설화가 신문보도에 어떤 이야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자층이 각계각층에 있다 보니 어떤 보도를 해도 누군가는 아쉬운 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광주일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신문이다.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지역 최고의 정론지로서 지역민들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기사의 신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치열한 취재정신과, 시대상황을 읽어내는 뛰어난 비평정신,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소통부재와 갈등의 늪에 빠져있다. 지난 5년 동안 더욱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소득의 양극화, 계급 간 지역 간의 갈등, 한미 FTA 문제 등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지

역을 대변하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미 FTA 발효로 겪게 될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업의 피해 문제, 요즘 대두된 학교폭력의 대책, 노인문제와 청년실업 대책 등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역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정론지로서 지역민에게 바탕을 둔 일관성 있는 보도태도를 견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 같은 보도태도를 보이다가, 어느 날은 영산강의 증진보와 죽산보를 새로운 관광지로 홍보하며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듯 한 태도는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항상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신문, 주민의 삶과 애환을 담아내는 신문이 되고자 할 때 명실상부한 호남 최고의 정론지로서 독자층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본지 독자위원회 위원장·시인>

기고



박인화

교과부 종합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가 내려오며 광주교육계가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처분요구내용을 살펴보면 논란이 일었던 사립학교 특채과정에서 전교조 교사로부터 바퀴치기한 사건과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식의 전직 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지난 13일 문체의 심각성을 느끼고 교과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운운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교과부가 감사결과를 공식발표하려 하자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20일 유감을 표명하며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서둘러 내놓았다.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교육의원으로서 이번 교과부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교육행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광주시교육청의 다음과

같은 행태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먼저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대한 시교육청의 시각이다.

이미 교과부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청이 지난 12일 내려졌고 장 교육감이 보도자료 형태의 입장 표명을 한 시점은 20일이다. 그 기간동안 본인을 비롯한 교육의원들은 즐기차게 처분요청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

의원들은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귀동냥하고 정확한 세부내용은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교육청은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 인원과 행·재정상 조치 건수만 요약정리한 한 장짜리 답변서를 보내왔다.

교육의원들의 요구는 광주시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는지 광주교육을 걱정하는 전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의회의 요구는 무시한 채 교과부의 결과발표에 발맞춰 언론에 입장 표명만 하고 여전히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행부 감사 기능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고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두번째는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의혹이다.

이번 감사가 아무리 6년만의 감사였다고는 하나 굵고 짙은 상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특정단체에 편중된 인사를 억지로 짜맞추려다보니 규정에 어긋난 방법까지 동원됐던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사립교원 특채 과정에서 합격자를 바퀴치기 하기위해 평가표를 조작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조사까지 의뢰한 상태이다. 또한 자격외인 및 임용절차 등 세부적인 임용계획은 수립하지도 않고 교육감이 지명된 교사 1인만 추천해 광주교육 전반을 기획해야 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전직 임용했다.

물론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맞게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 편중된 인사로 '자기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규정에 어긋난 방법까지 동원해서는 안된다.

은갖 의혹이 난무한데도 교과부의 감사결

이 없는 실정이다. 목장용지는 토지의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일반 농지 외에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도 포함시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지와 마찬가지로 목장용지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고 있다. 본인 소유든 대토든 모두 목장용지에 대해서만 이런 규제가 있는 것은 목장용지를 여전히 땅장사 하는 사람들의 투기대상으로 보기 때문인 듯 하지만 지금 사실상 목장에서 목축업을 하는 농민들이 다 소유

과가 나와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놓고 내용 공개를 미작거리려는 것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축소·은폐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는 지난해 일선학교현장에 무더기 징계폭탄을 내릴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인사에 관한한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마지막으로 이번 문제를 대하는 교육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진보를 가치로 내걸고 당선된 장 교육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주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장 교육감이 공식 기자회견도 아니고 대변인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로 대응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봉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교과부 감사에 따른 처분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교육감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베버는 '책임과 권위는 존엄의 양면과 같다'고 했다.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장 교육감이 시민들 앞에 직접 나서 해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힘으로써 '책임있는 권위'를 세우길 기대한다.

<광주시의원>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종가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목장용지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사육두수에 두당 일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면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축산용 임대하거나 매각을 위해 사육을 중단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목축업을 하는 농가들을 위해 모순된 규정을 적절히 손바꾸어주면 한다.

▲김성욱·목포시 대방동

시설

도 넘은 단체장 선거개입 근절 방안 없는가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현직 구청장이 특정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가 하면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다 고발되거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유태영 광주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광주지검에 구속됐다. 유 청장은 현직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2개 동네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 가동한 혐의로 받고 있다. 구청장이 특정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형배 광산구청장도 지난 19일 모임을 통해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소식지 등에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지검 순창지청도 민주당 고홍·보성 경선과정에서 단체장의 불법 동원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개입은 특정후보 지지를 통해 2년 후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의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정치구도는 이런 악습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 파문은 그동안 정치권에 제기돼왔던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여론과 맥을 같이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천 비리다. 선거개입뿐만 아니라 공천을 받으려고 중앙정치인에게 공천자금을 줬다가 적발되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측화, '노예 계약' 등을 내세워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치권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선거개입 등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제대로 활착되고 지역 정치발전도 괴할 수 있을 것이다.

알뜰주유소 휘발유값 일반보다 비싸다니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가 광주·전남에서 의면 받고 있다. 정부의 공급가가 그다지 싸지 않아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량 구매한 석유제품을 알뜰주유소에 좀 더 싸게 공급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알뜰

주유소를 전국에 확산시켜 유가 안정을 기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지역의 알뜰주유소 설치는 극히 미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53곳의 알뜰주유소 가운데 지역 평균 휘발유 값보다 더 받는 주유소가 8곳이나 되고, 8 달 판매가가 6~16원 비싸다고 한다. 특히 알뜰주유소보다 더 싸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일반주유소가 80곳에 이른다니 말쑤인 '알뜰'인 셈이다. 그나마 이들 주유소는 대부분 농협 소유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3개 뿐이다.

광주지역도 325개 주유소 가운데 알뜰주유소는 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지역 단 2곳에 불과하다. 알뜰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광주지역 평균치(2029원)보다 20~30원 저렴하지만 한 달 사이 휘발유 값이 6원 오르는 동안 이들 주유소도 50원이나 치솟아 상승폭이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통한 유가 안정책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효과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셈이다. 휘발유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정부가 정유사보다 값싼 석유제품을 들여와 공급하지 않는 이상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값을 더욱 낮추든지, 아니면 유류세 인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맨질식 유가대책으로 소비지만 우물만 볼이다. 서민의 다급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無 等 鼓

고대 그리스시대 유명한 시인 호메로스가 지은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자 고대 이타케의 왕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집안 일은 물론 특히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문제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을 끙끙 앓던 그는 절친한 친구이자 신하로서 그를 받들던 멘토르에게 근심을 털어놓았다. 오디세우스의 고충을 전해들은 멘토르는 텔레마코스의 가정교육과 함께 훗날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도를 하겠노라고 약속하며 안심시킨다.

이후 멘토르는 텔레마코스의 친구이자 상담자가 돼 올바른 인성을 갖추며 성장하도록 노력했다. 때때로 멘토르는 전장에 나가있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맡았다.

멘토르의 도움을 받던 텔레마코스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했지만 두려움에 산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어머니를 넘보는 이들에게

나타나 그의 계획을 방해한다.

텔레마코스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멘토르는 믿음으로 격려했다. 멘토르에게 용기를 얻은 텔레마코스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왕국을 구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멘토'(Mentor)는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멘토르에서 유래한다. 오디세이아에

서 알 수 있듯이 멘토는 지혜와 신뢰, 현명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길잡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요즘 광주 경찰관들이 멘토로 나서 화제다. 경찰관들은 '일진'이나 '짱'들과 만

나 지금까지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참회하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오디세이아의 멘토르가 텔레마코스를 훌륭한 왕제로 키워냈듯,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경찰관 멘토의 활약은 칭찬할 만하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멘토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다 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 획 사 업 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